

뉴멕시코주도 홍수 3명 사망...텍사스 희생자 119명으로 늘어

산불 피해 지역 폭우 강물 순식간에 범람...집 통째 떠내려가
“기후변화로 美 전역 시간당 강우량 증가...홍수 발생 잦아져”

미국 텍사스주에서 대규모 홍수 참사가 발생한 지 며칠 만에 텍사스주와 경계를 맞댄 뉴멕시코주 산지에서도 폭우로 강물이 순식간에 범람해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9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NBC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후 뉴멕시코주 남부의 휴양지로 유명한 시에라 블랑카 산맥의 루이도소 마을에서 홍수가 발생해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지역 당국은 이 마을을 덮친 홍수로 4세 여아와 7세 남아, 40~50대로 추정되는 남성 등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원과 정확한 관계, 구체적인 사망 경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전날 오후 이 지역에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악의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리오 루이도소 강이 기록적인 2024피트(62m) 높이로 평소 수위의 10배 넘게 불어났다. 이는 지난해 7월 기록한 15.86피트를 넘어 최고 수위를 경신한 기록이다.

강물은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지 단 몇 분 만에 27m 가까이 치솟았다고 AP는 전했다.

당시 지역 주민 케이틀린 카펜터가 강변에서

급히 대피하며 촬영한 영상에는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에 집 한 채가 통째로 떠내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카펜터는 이 집이 자기 친구 집이라면서 다행히 당시 친구 가족이 집을 비운 상태여서 화를 면했다고 전했다.

이 지역에 급파된 응급 구조대원들은 침수된 집과 차 안에 갇힌 사람들 8명을 구조했다.

미셸 루한 그리섬 뉴멕시코 주지사는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역은 특히 지난해 여름 큰 산불로 약 61㎢ 면적이 불타 대부분의 식생이 파괴되면서 침수에 취약한 상태였다.

산불 이후 이 지역은 폭우가 내릴 때마다 강물의 급격한 범람과 홍수 위험을 받아왔으며, 12차례 이상의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미 언론은 근래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진 점도 홍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연구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의 지난해 분석에 따르면 1970년 이후 미국 전체 도시의 약 90%에서 시간당 강우량이 증가했다.

이번 뉴멕시코 홍수는 지난 4일 텍사스주 중



9일(현지시간) 미국 뉴멕시코주 루이도소에서 치명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한 후 멕시코 음식점인 라 살사 키친(La Salsa Kitchen)의 친구들과 직원들이 식당에서 주방 장비를 옮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부 내륙 커 카운티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또 일어난 수해다.

과달루페 강 상류 지역인 커 카운티에서는 폭우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강물이 8~9m 높이로 불어나면서 강변의 주거지와 어린이 캠핑장 등을 휩쓸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

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상 예보를 통해 이번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했다면서도 “30피트(9.1m) 높이의 ‘쓰나미 벽’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홍수 피해 지역에서 이날 오전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어린이 30명을 포함한 119명으로

늘었다.

전날 애벗 주지사가 밝힌 실종자 수 17명은 그대로 유지된 채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미 기상청(NWS)은 이날 텍사스 중남부 일부 지역에 추가로 폭풍우가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연합뉴스

외신, ‘尹 재구속’ 신속 보도 “장기 구금 가능성 열리게 돼”

로이터·AFP 등 주요외신 ‘긴급’ 타전

AP·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9일(현지시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와 서울중앙지법 결정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근처 구금시설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구속을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could mark the beginning of an extended period in custody’)”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대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면한 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재구속된 사실을 업데이트하면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고를 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는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AFP통신, 중국 신화통신, 러시아 타스통신 등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 특검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 영장 발부 흐름을 팩트 위주로 신속 전달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그의(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기타 형사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는 AP 기사를 재인용해 전했다. /연합뉴스

北,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6달째 철거...“옥상구조물 제거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옥상 구조물을 제거하며 철거를 4개월 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구관측 위성 ‘플레이어데스 네오’가 지난 5일 촬영한 금강산 관광지구 위성 사진을 분석해 면회소 건물 옥상 구조물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면회소는 옥상 구조물이 제거되면서 건물 내부가 훤히 드러나 있다.

북한의 면회소 철거 동향은 지난해 연말부터 포착됐다. 통일부는 지난 2월 북한이 면회소 철거를 시작했으며 면회소 본관 상층부에 있는 전망대와 건물 외벽·타일을 뜯어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38노스는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 철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당 작업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속도로 진행되

고 있다”고 전했다.

금강산 관광지구는 2019년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해 “보지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저절로 납득 시설을 싸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민간 시설을 시작으로 속속 철거가 진행됐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은 마지막 우리 정부 시설인 면회소까지 철거가 끝나면 주요 납득 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연합뉴스

2000년에 퇴치 선언했는데...美 홍역 발생 25년만에 최고

확진 판정 92%가 백신 미접종

2000년 홍역 퇴치를 선포한 미국에서 올해 홍역 확진 판정자가 급증해 25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발표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를 인용해 전날까지 1천288명이 홍역 확

진 판정을 받았으면서 이는 홍역 퇴치 선언 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2019년(1천274건) 사례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미국에서는 지난 1월 텍사스주 메노파교(기독교의 한 분파)에서 홍역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뉴멕시코주, 오кла호마주 등으로 퍼지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38개 주에서 홍역 확진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NYT는 미국이 1년 이상 홍역 발생이 지속하지 않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홍역 퇴치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며,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률이 개선되지 않으면 홍역 발생이 ‘뉴노멀’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CDC는 올해 미국 홍역 확진 판정자 중 92%가 백신 미접종자였으며, 홍역 확진판정 아동 1천명 가운데 1~2명은 사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백신 미접종 아동 2명과 성인 1명이 홍역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10년간 미국에서 홍역으로 목숨을 잃은 첫 사례다. /연합뉴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 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 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 샵
(골프채, 각종용품, 용구)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